

2015 6. 07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제 1 독서 : 탈 출 기 24,3-8 < 이는 주님께서 너희와 맺으신 계약의 피다. >

제 2 독서 : 히 브 리 9,11-15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복 음 : 마 르 코 14,12-16.22-26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베이커스필드 성클레멘테성당 : 본당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어제 거의 200 여명의 어린이가 우리 성당에서 첫 영성체를 받았습니다. 아침 9 시의 영어 미사와 11 시 스페니시 미사에 성당이 꽉 찼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60 여명이 견진성사를 받을 때에도 성당이 꽉 찼습니다. 그것을 보며 느껴지는 것이, 저희가 주일 11 시반 미사

는 성당이 꽉 차서 바깥에 까지 서서 미사를 참례하는데, 9 시반 미사는 꽉 차지를 않습니다. 토요일 특전미사도 마찬가지로 차지를 않습니다. 더우기 방학을 하게 되면 성당이 텅텅 비게 됩니다. 아이들 교리교육이 끝나면 왜 그럴까? 그 교리교육은 분명히 하느님을 알고, 믿고, 섬겨라! 그리고 주일을 거룩히지내라! 는 내용을 함께 가르치는데 방학을 하면 성당 오는 것을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 오늘 1 독서에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탈출기의 말씀을 보면,

**“그 무렵 모세가 백성에게 와서
주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법규를 일러 주었다.
그러자 온 백성이 한목소리로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실행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제가 이 구절을 읽었으면 아마도 캐치를 하였을 것입니다. 왜? 무슨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방식대로 하느님을 믿는지?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잘 모릅니다. 또 그분의 법규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자기가 편한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얼마만큼이나 하느님의 말씀과 그분의 법규를 아시고, 그것을 따라서 실행하고 있으신지? 제가 어제 한 어린이에게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그 어린이에게 “물 백도의 느낌을 알고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모른답니다. 그러면 집에가서 엄마한테, 또는 아버지한테 물백도를 끓여 달라고 하여라, 그리고 네 손을 집어 넣어보아라. 끔찍한 일이지요, 자기는 그 백도의 효력을 모르지만 모른다고 해서 손이 안데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백도의 그것은 그냥 남아있어요. 내가 알건 모르건, 그런데 내가 알았더라면 나는 손을 넣겠지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느님의 법과 그분의 말씀을 모르고 산다면 나도 모르게 그 백도가 넘는 그것에 자꾸만 손을 담그게 될것 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나? 지옥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너무 쉽게 하느님의 크심을 모르고 삽니다. 내 느낌이 중요하고, 내 기분이 중요하고,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그래서 나만 옳고 편안하면! 그러나 그 편안함도 사실은 완전한 편안함이 아니예요, 왜냐? 잘못을 모르고 계속 저지르다보면,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납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영혼이 “나를 뜨거운 물에서 건져내주어! 왜 나를 자꾸 집어넣어!” 하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내심이 부족하고, 내 이웃을 용서할 줄 모르고, 짜증이 난다는 것은 그만큼 내 영혼이 그 뜨거운 것에 고초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받은 신앙입니다. 계시된 신앙, 하느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 아드님을 통하여, 지금은 그 아드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달되는 내용이 살다보면서 내 뜻에 안 맞습니다. 내 기분에 안 맞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신앙인들의 자세입니다. 나한테 거북하니까! 이것은 치우고, 저것은 던져버리고, 저것은 잘라버리고,

또, 이것은 편하니까 받아들이겠소! 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지요. 자기가 만든 하느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시된 하느님을 믿는것이 아니라 내가 편안하게 만들어낸 내 방식대로의 하느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2 독서의 말씀을 연구하다가 그만 어떤 개신교 교수님이 천주교 신앙으로 바뀔니다. 이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요한 복음 6장과 연결이 되고, 요한 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들에게는 생명이 없다, 즉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선포를 하십니다.** 바로 2독서, 히브리서에서 예수님 당신이 직접 당신을 희생양으로, 당신이 대사제로 하느님께 재를 올리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미사가 바로 우리에게 그분의 살과 피를 나누어주는 역할이라는 것을 이 교수님은 확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신교에서 천주교를 앞장서서 반대를 하던 바로 그사람이 천주교로 신앙을 바꾸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말이 있습니다. 자기는 개신교 신앙을 버린것이 아니라 업그레이드한 것이라고, 내 신앙을, 내 개신교신앙에 없는 것을 나는 업그레이드 했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이말을 이해하시려면, 우리도 개신교신앙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사는지? 내가 믿고있는 천주교신앙이 과연 업그레이드 된것인가? 아니냐? 를 알려면 개신교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나의 신앙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고,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를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구약성서를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가 끝나고, 이제 탈출기 중간쯤 왔는데, 계속 **공통점은 하느님이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백성이 형성되면서 당신의 대리자를 뽑습니다. 모세를 뽑고,그 모세와 아론을 뽑아서 당신을 대신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야기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개신교 신앙하고 전혀 틀리는 것이지요. 개신교 신앙은 무엇이냐 하면 1:1 입니다. 하느님하고 나, 중재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서를 잘 읽다보면 하느님은 항상 중재자를 두셨어요, 1:1 나만 하느님 앞에서 괜찮으면, 괜찮아! 이것이 아닙니다. 성서를 이해 한다면, 우리가 고해성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쳐야 합니다.** 오늘 의 2독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
그리고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리는 암송아지의 재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그 몸을 깨끗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한 영을 통하여
흠 없는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죽음의 행실에서
얼마나 더 깨끗하게 하여,
살아 계신 하느님을 섬기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양심, 양심은 하느님께서 심어주셨습니다. 깊숙히, 우리마음에. 그런데 그 양심이

자라서 우리를 인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려며는, **하느님의 말씀과 그분의 법규를 계속 심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양심을 위한 양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주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양심은 죽고 맙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도 괜찮은 느낌, 허지만 나도 모르게 짜증이나고, 우울하고, 늘 옆의 사람이 꽤섬하게 느껴집니다. 나한테 아무런 잘못된것이 없는데도, 또한 용서할 마음이 전혀 생기지를 않습니다. 과연 나는 성체성사에, 성체안에 존재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저는 자꾸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게 무엇이나하면, 저도 모르게 자꾸 판단하게 됩니다. 공동체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판단이나하면, 과연 저분들이 성체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한국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한국을 가면 가끔 목격하게 됩니다. 겼을 계속 씹는 분들이 있어요. 성당안에서 겼을 씹는분들을 미국공동 체나 스페니스공동체에서 가끔 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때는 성당안에서는 서로 인사도 안했습니다. 일단 성당안에 들어오면, 오직 성체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과만 대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LA 나 한국이나 어디를 가던 성당안에서의 그 성스러움은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됩니다. 이분들이 과연 예수님이 성체안에 존재하심을 진정으로 믿고 계실까? 저는 이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저는 매일 첫미사를 드려요. 매번의 미사, 평일미사도 저에게는 첫미사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저는 늘 두려운 마음으로 미사를 드립니다. 저 한테는 매일 첫 미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르코 복음을 통해서 당신의 최후 만찬, 성찬을 다시 우리에게 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 복음에서 그 뜻이 무엇 인지를 정확히 설명하십니다. 내 살을 먹지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삶을 살 수 없다.** 다시한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성체안에 존재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또 그분을 정성껏 받아 모시는지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본기도

살아 계신 주 하느님, 주님 백성이 이 제대에 모여 새 계약의 제사를 봉헌하오니,
저희 마음을 깨끗이 씻어 주시어, 이 어린양의 잔치에서 천상 예루살렘의 영원한
파스카 음식을 미리 맛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제 1 독서

<이는 주님께서 너희와 맺으신 계약의 피다.>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24,3-8

그 무렵

모세가 백성에게 와서

주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법규를 일러 주었다.

그러자 온 백성이 한목소리로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실행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였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산기슭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 따라

기념 기둥 열둘을 세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몇몇 젊은이들을 그리로 보내어,

번제물을 올리고 소를 잡아

주님께 친교 제물을 바치게 하였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을 가져다 여러 대접에 담아 놓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그러고 나서 계약의 책을 들고 그것을 읽어 백성에게 들려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실행하고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 백성에게 뿌리고 말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대로 너희와 맺으신 계약의 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16(115),12-13.15 와 16 ㄷ ㄹ.17-18(◎ 13)

◎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주님께 갚으리오?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 주님께 성실한 이들의 죽음이,
주님 눈에는 참으로 소중하네.
저는 당신의 종,
당신 여종의 아들.
당신이 제 사슬을 풀어 주셨나이다.

◎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 주님께 감사 제물 바치며,
주님 이름 부르나이다.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나의 서원 채우리라.

◎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제 2 독서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9,11-15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것들을 주관하시는
대사제로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람 손으로 만들지 않은,
곧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는
더 훌륭하고 더 완전한 성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성소로 들어가시어
영원한 해방을 얻으셨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
그리고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리는
암송아지의 재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그 몸을 깨끗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한 영을 통하여
흠 없는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죽음의 행실에서 얼마나 더 깨끗하게 하여,
살아 계신 하느님을 섬기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새 계약의 중개자이십니다.
첫째 계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로부터
사람들을 속량하시려고
그분께서 돌아가시어,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약속된 영원한 상속 재산을
받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부속가

<성체 송가: 21 절부터 시작해서 짧게 할 수도 있다.>

1. 찬양하라 시온이여, 목자시며 인도자신, 구세주를 찬양하라.
2. 정성다해 찬양하라, 찬양하고 찬양해도, 우리능력 부족하다.
3. 생명주는 천상양식, 모두함께 기념하며, 오늘특히 찬송하라.
4. 거룩하온 만찬때에, 열두제자 받아모신, 그빵임이 틀림없다.
5. 우렁차고 유쾌하게, 기쁜노래 함께불러, 용약하며 찬양하라.
6. 성대하다 이날축일, 성체성사 제정하심, 기념하는 날이로다.
7. 새임금님 베푸잔치, 새파스카 새법으로, 낡은예식 끝내도다.
8. 새것와서 옛것쫓고, 예표가고 진리오니, 어둠대신 빛이온다.
9. 그리스도 명하시니, 만찬때에 하신대로, 기념하며 거행한다.
10. 거룩하신 말씀따라, 빵과술을 축성하여, 구원위해 봉헌한다.
11. 모든교우 믿는교리, 빵이변해 성체되고, 술이변해 성혈된다.
12. 물질세계 넘어서니, 감각으로 알수없고, 믿음으로 확신한다.
13. 빵과술의 형상안에, 표징들로 드러나는, 놀랄신비 감춰있네.
14. 살은음식 피는음료, 두가지의 형상안에, 그리스도 온전하다.
15. 나뉘없고 갈림없어, 온전하신 주 예수님, 모든이가 모시도다.
16. 한사람도 천사람도, 같은주님 모시어도, 무궁무진 끝이없네.
17. 선인악인 모시지만, 운명만은 서로달라, 삶과죽음 갈라진다.
18. 악인죽고 선인사니, 함께먹은 사람운명, 다르고도 다르도다.
19. 나뉘성체 조각마다, 온전하게 주 예수님, 계시움을 의심마라.
20. 겉모습은 쪼개져도, 가리키는 실체만은, 손상없이 그대로다.
21. 천사의빵 길손음식, 자녀들의 참된음식, 개에게는 주지마라.
22. 이사악과 파스카양, 선조들이 먹은만나, 이성사의 예표로다.
23. 참된음식 착한목자, 주 예수님 저희에게, 크신자비 베푸소서.
- 저희먹여 기르시고, 생명의땅 이끄시어, 영생행복 보이소서.
24. 전지전능 주 예수님, 이세상에 죽을인생, 저세상에 들이시어,
하늘시민 되게하고, 주님밥상 함께앉는, 상속자로 만드소서.

복음 환호송

요한 6,51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알렐루야.

복음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4,12-16.22-26

무교절 첫날

곧 파스카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가서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며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터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스승님께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을 내 방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자리를 깔아 준비된 큰 이층 방을 보여 줄 것이다.

거기에다 차려라.”

제자들이 떠나 도성 안으로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일러 주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니 모두 그것을 마셨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 산으로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